

인왕산·한옥... 고즈넉한 풍경 벗 삼고 '커피 한 잔'

Q 르포 | 북촌에 들어선 '블루보틀 삼청카페' 가보니

“블루보틀 삼청카페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삼청동의 풍경과 고품질의 커피를 맛보세요.”
8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자리잡은 블루보틀 삼청점에서 만난 손현주 블루보틀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매니저는 “블루보틀의 브랜드 철학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을 찾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1호점인 성수점과는 다른 블루보틀을 즐길 수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10시 오픈시간 전부터 대기고객
하얀색 기반 깔끔한 현대적 외관**
**1층 미술관·2층 한옥·3층 인왕산
층마다 다양한 삼청동 풍경 보여**
**콘서트·와이파이 미제공 “아쉬워”
지역상권 위한 상생사업 준비단계**

블루보틀 삼청점이 자리한 삼청동은 경복궁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정독도서관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삼청점은 성수점과 마찬가지로 일본 건축가 조 나가사카가 직접 설계했다. 1호점과 가장 다른 것은 깔끔한 흰색을 현대적 외관의 3층 구조다. 정식 오픈시간이 10시 임에도 많은 고객들이 블루보틀의 커피맛을 보기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
출입문을 열고 1층으로 들어가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쪽 벽 전체에 자리한 창이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정면으로 보였고, 회색 벽돌이 건물 밖으로 이어지면서 안팎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줬다.
손 매니저는 “기존 건물을 정리하고 남은 부자재인 회색 벽돌을 이용해 친환경적이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출입문 오른쪽으로 MD 디스플레이 존이 위치해 있다. 에코백, 머그잔, 텀



블루보틀 삼청점 MD 디스플레이 존.



블루보틀 삼청점에서 보는 경복궁과 인왕산.



블루보틀 삼청점.

/박인용 기자

블러 등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매장 가운데는 원두, 매거진, 레시피가 담긴 책자 등이 비치돼있었다. 고객들은 원하는 상품이 적힌 종이를 들고 카운터로 가 계산하면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 카운터에서는 블루보틀 커피와 베이커리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2층으로 자리를 옮기니 역시 커다란 창이 눈에 들어왔다. 창밖으로는 북촌 특유의 한옥들이 이어져있었다. 1층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어진 창을 통해 삼청동의 다른쪽을 볼 수 있었다. 회색벽

돌 인테리어 중간에 블루보틀의 트레이드 마크인 파란 병이 그려져있었다. 벽 앞에는 커피 및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는 코르크 소재의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 자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다.
3층은 좀더 여유롭게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가 비치됐으며, 야외 테라스도 있다. 이곳에서는 사이폰 커피(플라스크를 이용한 진공 커피)를 주문해 마실 수도 있다.
음료를 제조하는 바 뒤쪽으로는 큰 창을 통해 경복궁과 인왕산이 눈에 들

어왔다. 블루보틀 삼청카페는 각 층마다 다른 방향을 통해 삼청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한점이 특징이다.
블루보틀은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와 다른 정책을 삼청점에도 적용했다. 와이파이와 콘서트, 많은 좌석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커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에 한국 커피 고객의 소비 심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관 오른쪽에는 기존 작은 한옥을 리뉴얼한 별관이 있다. 한옥을 배경으로 핑크와 민트 컬러를 활용한 가구들을 거실, 다이닝 공간에 걸맞게 연출했다. 이곳은 이달 말부터 예약제를 통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삼청동의 일원이 된 블루보틀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다.
손 매니저는 “블루보틀은 지역 사회의 일환이 돼 재미있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며 “예를들어 커뮤니티 맵이다.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블루보틀은 클라리넷 연주자인 제임스 프리먼이 2002년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에서 창업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다. 스페셜티 원두를 사용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살린 공간, 바리스타의 따뜻한 환대가 특징이다.
현재블루보틀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도시에 약 60개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하반기에는 서울 테헤란로 강남 N타워에 국내 3호점을 낼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빈폴 “헌 옷 가져오면 새 옷 드릴게요”

1989년~2001년 빈폴 티셔츠 대상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빈폴맨·빈폴레이디스 매장에서 헌 옷을 새 옷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빈폴의 ‘헌옷 줄게, 새옷 다오’ 추억 소환 이벤트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생산된 빈폴 티셔츠를 가지고 오는 고객에게 올해 봄·여름 시즌 신상품 티셔츠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이다.

1989년 론칭한 빈폴은 초창기 로고를 2001년까지 사용했다. 해당 기간 동안 생산된 티셔츠를 전국 빈폴(맨·레이디스) 매장으로 가져와 기증하면 원하는 신상품 티셔츠를 수령할 수 있다. 제품에 손상이 없고 목 부분 메인라벨이 붙어 있어야 교환이 가능하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기증된 옛 티셔츠를 활용해 향후 빈폴 플래그십스토어에 아카이브 전시를 진행하는 등 고객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코리아둘레길 서해안길’ 이름 직접 짓는다

문체부·관광공사 18일까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8일까지 코리아둘레길의 서해안길 이름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 DMZ 접경 지역 등 한반도 외곽의 기존 걷기 여행길을 이어 브랜드링하는 사업으로, 약 4500km의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이다.
앞서 설정된 동해안 및 남해안 노선

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각각 ‘해파랑길’과 ‘남파랑길’로, 올해 노선조사를 실시하는 DMZ 접경지역 노선은 ‘DMZ 평화의 길’로 선정됐다.
코리아둘레길 서해안길은 해남 땅끝마을부터 인천 강화까지 110개 코스, 1804km의 길로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많은 섬과 내륙 깊숙이 발달한 만, 광활한 갯벌, 아름다운 일몰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근대문화, 종교,

역사, 인물 등의 인문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걷기여행 누리집인 ‘두루누리’ 공식 페이스북에 접속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총 400명에게 초복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시원한 여름 선물 삼계탕(100명)과 팔빙수(300명) 모바일상품권이 증정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애경산업 ‘세라마이드 AK’ 美 특허권 취득

韓·中·日 이어 4개국서 특허권
애경산업은 독자 개발한 유사세라마이드인 ‘세라마이드 AK’가 미국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애경산업의 유사세라마이드는 2016년 국내 특허권을 취득, 2018년 일본과 중국 올해는 미국까지 총 4개국의 특허권을 취득했다.
애경산업 중앙연구소가 2009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독자 개발한 세라마이드 AK는 제형 상용성이 뛰어나 다양한 제형에 활용이 가능하고, 원가 경쟁력이 좋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김민서 기자

애경산업 중앙연구소는 대전테크노파크와 2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 공정을 단축해 환경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세라마이드 AK를 개발하게 됐다.
세라마이드 AK는 내부 평가를 통해 인체 피부 자극 정도를 확인하는 인체 점포시험에서 무자극 피부장벽 회복을 통한 보습력 우수성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가톨릭의대피부과와의 공동연구에서 두피 각질, 흉반 개선효과 등을 확인했다.
/김민서 기자

“폭염 피해 숲속으로 ‘우리술 여행’을”

국순당 주향로, ‘주말에 치유여행’
국순당은국립황성숲체원과공동으로 체험프로그램인 ‘주(酒)말애(爰) 1박 2일 치유여행’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폭염을 피해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국립황성숲체원의 청태산 아름다운 숲속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즐기고 국순당 황성양조장 주향로 견학 및 술빚기 체험인 ‘우리술 여행’으로 진행된다.
오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국립황성숲체원 및 국순당 황성양조장에서 진

행되며 3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국립황성숲체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국순당 주향로는 ‘술 향기 가득한 길’이라는 뜻의 우리술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주 양조장인 국순당 황성 양조장 내에 2005년부터 운영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2019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될 정도로 지역 명소로 인정받고 있다.
국순당은 이번 프로그램이 우리술의 역사를 바로 알고 취하기보다는 반주로



국순당 주향로.

/국순당

음식과 함께 즐기던 조상들의 음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순당은 향후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지역 주요 단체와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